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kicce.re.kr	보 도 자 료		
	작 성	담당부서	미래교육·보육연구팀(☎ 02-398-7713)
		담당자	김지원 미래교육·보육연구팀장(☎ 02-398-7713)
	배 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 02-398-7740)
		일 시	2026년 7월 6일(월)
보 도 일 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제55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성료

- 영유아기 배움의 본질 세우기: 과열 사교육 시대의 발달 중심 교육 재설계 -

< 주 요 내 용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2026년 7월 2일(목) 14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영유아기 배움의 본질 세우기: 과열 사교육 시대의 발달 중심 교육 재설계」를 주제로 제55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2026년도 사교육 대응 연구를 추진하며, 영유아기까지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열풍과 과도한 조기 학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주목해 왔다. 연구소는 영유아기 교육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해당 연구의 일환으로,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초기 단계에서 영유아기 사교육 과열의 실태와 문제를 진단하고, 영유아기 배움의 본질과 교육의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하였다.
- 이번 육아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영유아기 사교육 실태, 뇌 발달, 정서·행동특성, 인지과학,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총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 먼저, 박진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은 ‘데이터로 본 사교육 실태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는 영유아기 사교육 참여 실태와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교육 과열 현상의 양상을 살펴보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어 양동화 임상조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영유아기 뇌 발달에 맞는 교육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는 영유아기의 뇌 발달이 애착, 놀이, 관계, 수면, 신체활동, 언어적 상호작용 등 삶 전체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영유아기 교육은 강한 자극이나

선행학습보다 발달 시기에 맞는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박진아 조교수(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는 ‘과도한 조기 학습 사교육과 영유아의 정서행동특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는 놀이치료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조기학습 사교육을 경험한 영유아에게 불안, 초조, 위축 등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과 놀이중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유제광 부교수(한국인지과학회)는 ‘인지과학 기반 영유아의 교육과정 설계 원리’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는 영유아기 교육을 ‘얼마나 일찍, 얼마나 많이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탐색의 여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핵심 인지 시스템의 보존, 개념 형성에 필요한 시간 보장, 탐색과 활용의 균형, 신체·감각 경험에 기반한 체화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진령 조교수(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는 ‘사교육 과열의 시대, 영유아의 배울 힘을 기르는 유아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는 놀이와 학습을 대립적으로 보기보다, 놀이 안에서 언어, 개념, 자기조절, 사회정서, 참여와 같은 장기 학습역량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아기 공교육이 조기사교육을 단순히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한 놀이 기반 교육과정, 교사의 전문성, 유·초 연계, 발달 피드백을 통해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대안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훈 영유아정책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는 정효정 교수(전 중원대학교), 김호현 교수(광주대학교), 김수오 학부모, 오승진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영유아기 사교육 과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제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공교육·보육 내실화, 부모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경험과 교육 환경을 이해하고, 과도한 사교육이 영유아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영유아기는 아이들이 놀이와 관계, 탐색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길러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과열된 사교육 환경 속에서 영유아기 배움의 본질을 다시 살펴보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육아정책 심포지엄 자료집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자료집 내려받기: <https://m.site.naver.com/2bZ0p>

붙임. 제55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사진 5매. 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보육연구팀 김지원 팀장(☎ 02-398-77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